

조선 왕실의료문헌과 문집에 나타난 牛角灸法 연구

오준호, 김진희,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Study on Horn-shaped Moxa Treatment in the Annals and Anthologies of Joseon-Korea.

Oh Junho, Jinhee Kim, Sangwoo Ahn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Moxa treatment has outstanding effects that are frequently facilitated in a clinical setting, and it is also known to have positive effects for immunity and relief of pain through various studies. Currently, moxa treatment has become diversified in many ways. One of the moxa treatment techniques that was frequently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Woogakgubeop (牛角灸法, horn-shaped moxa treatment). This articles aims to disclose the fact that the Woogakgubeop is the technique applicable to the origin of the Large moxa treatments of today. Also, the writings of Woogakgubeop recorded in the royal medical documentations, such as the Chronicles of the Royal Families of the Joseon Dynasty, the Seungjeonwonilgi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and others, a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ogakgubeop are cleared through it.

Methods: From the royal medical documents, the Chronicles of the Royal Familie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Seungjeonwonilgi, articles related Woogakgubeop were extracted and analyzed. Records of each document were facilitated for the DB search. In addition to these two documents, the records of written literature were surveyed as well. The written literature are appropriate to express the experiences of intellectuals at the time.

Results and Conclusions:

1. Considering that Woogakgubeop is a single therapy, there exists relatively many records in addition to the specialized medical documents, and through them, it is known that Woogakgubeop was a widely known therapy in the middle to later parts of Joseon in general.
2. Woogakgubeop is a method that addresses problems contained within the existing moxa treatment techniques. By enlarging the size of the mugwort wick, it strengthens the heat energy of the moxa treatment to reduce the frequency of applying moxa treatment. When undertaking the method to empty the wick inside the mugwort, the pain of a fever patient will be reduced and burn damage to the skin is minimized.
3. Wind-cold type weakness and other general moxa treatment techniques have been used for various symptoms detailed, including chest pain, tinnitus, carbuncle, cellulites, cold sense of leg, colic, diarrhea and other illnesses. In addition, it may generate strong fever, and was used to implement the Yeonjebeop (煉臍法).
4. Woogakgubeop is applicable to the origin of Large moxa treatment of today and it provides important bibliographic base thereof.

Key Words : Woogakgubeop (牛角灸法, horn-shaped moxa treatment), moxibusti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서론

뜸은 치료 효과가 우수하여 지금까지도 임상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면역, 통증 기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뜬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內經』에서는 溫經散寒하고 虛證을 補하는 경우에 다용되었으며, 脈의 병에 刺法과 함께 사용되어 여러 종류의 癰疽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疏散風邪의 효능 또한 중요하게 여겨졌다.²⁾ 이러한 뜬은 오늘날 임상에서도 중요한 기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다. 뜬쪽을 압착하여 만든 개량형 뜬을 이용해 경혈을 자극하기도 하고, 뜬쪽을 크고 오목하게 만들어 주로 체간에 사용기도 한다. 최근에는 복부 전체를 덮을 만큼 큰 뜬에 많은 쑥 뜬을 태우는 이른바 왕뜸 기법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방법들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조선에서 다용되었던 뜬법의 하나로 牛角灸法이 있다. 이 기법은 『鍼灸經驗方』, 『良方金丹』, 『醫方合編』, 『四醫經驗方』, 『醫彙』 등 조선에서 저술된 경험방서들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며³⁾ 중국의서에서는 우각구법과 관련한 치법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서적들은 조선의 경험 처방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우각구법이 조선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치법이라는 좋은 증거이다.

하지만 이 우각구법이 어떤 기법이었으며 어떤 경우에 시술되었는지 상세히 알려진 바 없다. 뿐만 아니라 牛角이라는 이름 때문에 속이 빈 牛角을 附甕처럼 응용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필자는 문헌을 근거로 이 기법을 정의하고, 우각구법이 오늘날 대형 뜬의 시초에 해당하는 기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 왕실의료문헌에 기록된 우각구법 기사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각구법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본론

본 연구에는 왕실의료문헌 중에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우각구법과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기록물들의 추출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활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웹서비스’(http://sillok.history.go.kr)를 이용하였다. 승정원일기 역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 웹서비스’(http://sjw.history.go.kr)를 이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실에서 일어난 대소사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한 기록유산이며 이 안에는 매우 많은 의료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승정원일기는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국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지 않은 자세한 치법이 묘사되어 있다.

이 두 문헌 외에 문집의 기록들도 조사하였다. 문집 검색에는 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이용하였다. 문집은 문인들의 시문을 엮어놓은 것으로, 사적인 성격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당대 지식인들의 경험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1. 牛角灸法の 시술 방법

우각구법은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로써 민간에서 처음 사용되어 후에는 양반과 왕실에까지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이 방법은 15세기 말 이전에 형성되어 19세기 말까지도 사용되었는데, 최초의 기록은 成宗實錄 20년(1489)⁵⁾에 등장하며 前觀象監 副奉事로 있던 李志濂이 한 醫僧에게 牛角灸法을 배웠다고 한다.

『鍼灸經驗方』(1644), 『良方金丹』(연도미상), 『醫方合編』(연도미상), 『四醫經驗方』(연도미상), 『醫彙』(1871), 등의 유행 시기가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牛角灸法の 형성과 발전은 조선 사회에서 비교적 오래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우각구법의 시술 방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설

명은 『鍼灸經驗方』 小兒門에 기록되어 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 7일이 되면 안쪽 배꼽의 땃줄이 저절로 말라 스스로 떨어진다. 그 날에 오래된 쑥으로 모양을 牛角과 같이 속이 비게 만들어 배꼽에 일곱 장 떠 주는데, 쑥 심지가 매번 반 정도 사그러들면 제거한다. 영원히 복통을 앓지 않는다.”(小兒初産七日, 內臍中胞系自枯自落, 其日即以熟艾, 形如牛角內空, 灸臍中七壯, 其艾炷每火至半即去, 永無腹痛)¹⁰⁾

위의 문장에서 牛角灸法이 어떤 기법이었는지 알 수 있다. 牛角灸法은 그 이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쑥을 우각 모양 즉, 속이 빈 원뿔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일반 뜸보다 크기는 더 컸다. 『醫方合編』에도 “오래 묵은 쑥을 소 뿔 모양의 기둥으로 만든다.”(用陳艾作牛角形柱)라고 하였다. 우각구법 시술에서는 실제 소뿔 [牛角]이 이용되지 않았다.

우각구법을 정의하면, 우각구법은 오래 묵은 쑥을 소 뿔 모양과 같이 원뿔 형태로 만들어 피부에 직접 붙여 사용하는 구법의 한 종류이다.

이 우각구법은 오늘날 대형뜸과 유사한 점이 많다. 크기가 크다는 점, 속이 비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실 오늘날 대형뜸이 최초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 개량되어 만들어져 왔을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이 구전되어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우각구법이 문헌적인 면에서는 대형뜸의 원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왕실의료문헌과 문집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실제적인 치료 데이터와 사용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역사 기록 속의 우각구법

우각구법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여러 문헌에 보인다. 오늘날과는 달리 인쇄매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어려웠던 조선 사회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학 기록의 경우 전문 醫書 이외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이 당시에 인지도 있는 기법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이다.

왕실의료문헌과 문집의 기록들에서 우각구법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뜸 시술시의 통증을 최소화

우각구법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일반 뜸의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이다. 우각구는 쑥심지가 일반 뜸에 비해 매우 컸으며 속이 비어 있어 열 효율이 좋았다. 때문에 치료시 열기가 더 강하였다. 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속이 빈 만큼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태우지는 않았다. 첫 번째 기사에서 열기운이 배나 된다고 한 것은 우각구의 높은 열효율을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기사에서 열이 심하지 않다고 한 것은 살을 태우지 않았음을 설명한 것이다.

- 선조실록 34년 신축(1601) 4월 10일(정축)⁵⁾
藥房에서 “灼灸는 쑥심지[艾炷]가 매우 작지만, 牛角灸는 쑥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는 타지 않으면서도 뜨거운 기운은 배나 더합니다.”라고 아뢰었다.(再啓曰 …… 大凡灼灸, 則艾炷至小, 牛角灸, 則艾炷甚大, 雖不灼肌, 其薰熱之氣, 則倍蓰……)
-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10월 10일 (갑술)⁶⁾
주상께서 “내가 전에 뜸을 떠 보았는데,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하였다. 中脘에 있어서는 더욱 참기 어려웠다. 나 또한 뜸을 뜨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었다. 聖微이 “牛角灸의 경우에는 열이 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뢰었다.(上曰, 已前試灸, 不忍其熱, 至於中脘, 尤爲難忍, 予亦知灸則愈矣. 聖微曰, 如牛角灸則不甚熱矣.)

2) 眞氣를 보충함

牛角灸法의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는 眞氣를 보충하는 것이다. 아래 선조와 효종의 치료 기록을 보

면, 먼저 침을 통해 불편한 증상을 개선한 뒤에 眞氣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牛角灸法이 사용되었다. 이는 침치료가 기본적으로 몸의 氣를 배출시키는 瀉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법 이후에 소진된 기운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우각구법이 사용되었다. 기사 중에도 “眞氣를 보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선조실록 34년 신축(1601) 3월 24일(임술)⁵⁾
藥房에서 “내일 주상께서 침을 맞으셔야 합니다. 신들이 다시 의관들과 반복해서 상의해 보니 반드시 먼저 여러 차례 침을 맞아 經脈을 통하게 한 뒤에, 虛證으로 寒邪가 모이는 곳을 보아서 그곳에다 牛角灸를 떠서 眞氣를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啓曰 明日自上, 當受鍼灸矣. 臣等更與醫官等, 反覆商議, 則必先累度受鍼, 以通經脈, 然後觀其虛寒邪氣所聚處, 乃施牛角灸, 以補眞氣爲當)
- 승정원일기 효종 8년(1657) 5월 26일 (무진)⁶⁾
약방에서 “上使가 安禮에게 명하여 왼쪽 팔에 受鍼 후 牛角灸를 행하게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又啓曰, 上使, 又令安禮左臂受鍼後, 仍施牛角灸云, 敢啓)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煉臍法에 牛角灸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사를 보면 당시 煉臍法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나라 안에 널리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煉臍法 자체도 진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기법인데, 아래 기사는 우각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 시킨 예이다.

-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2월 29일 (신묘)⁶⁾
履亨이 “中腕에 痰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煉臍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 漢喆이 “(煉臍)가 이미 나라 안에 널리 퍼져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손에 땀 뚝 자리를 보시고는 “뜨겁지 않으면서도 누런 기운이 남아 있으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구나.”라고 하시었다.

金德崙을 내보내어 (煉臍를 하기 위해) 牛角灸를 하기 위해 들이라 하였다. (履亨曰, 中腕分野挾痰處, 煉臍則甚好矣. …… 漢喆曰, 已遍於國中耳. 上示玉手灸處曰, 不熱而有黃氣, 可見有效也. 使金德崙出去, 使爲牛角灸以進.)

3) 擇日을 통해 시술됨

왕실에서는 일반적으로 鍼灸擇日法을 통해 날짜를 선택하고 침뜸을 시술하였다.¹³⁾ 아래의 두 기사는 우각구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의 두 기사는 같은 날 다른 시간에 남겨진 것으로 선조가 牛角灸를 사용할 것을 결심하고 시술 날짜를 잡을 것을 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 선조실록 31년 무술(1598) 9월 22일(갑진)⁵⁾
임금께서 답하시기를 …… 牛角灸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날을 가려 하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答曰 …… 牛角灸, 不可不爲, 擇日爲之.)
- 선조실록 31년 무술(1598) 9월 22일(갑진)⁵⁾
藥房에서 “ …… 牛角灸는 날을 가려 들여보내려 하나 침의 중에 朴春茂와 許任이 모두 무단히 출타중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牛角灸, 欲爲擇日入之, 而鍼醫中朴春茂, 許任, 皆無緣出外.)

4) 四肢의 중요 경혈에 활용된 예

아래 기사는 우각구가 사용되었던 실질적인 경혈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肩髃, 曲池, 足三里, 絕骨 네 혈에 우각구를 사용하였다. 당시 선조가 어떤 문제 때문에 침을 맞았는지 실록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우각구가 사지의 주요 경혈에 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선조실록 34년 신축(1601) 4월 9일(병자)⁵⁾
藥房에서 “내일 手足의 여러 穴 중에 긴요한 혈에 牛角灸를 하여야 하는데, 팔 부위는 肩髃와 曲池 두 혈이며, 발 부위에는 三里와 絕骨 두 혈로 議定하였습니다. 다만 혹시 邪氣가 모인 곳이

나 虛寒한 곳이 있으면 阿是穴에 뜸을 떠야 하므로, 오늘 入侍할 때에 다시 뜸하여 정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啓曰 明日當受牛角灸.手足部諸穴中, 要切之穴, 手部則肩髃、曲池兩穴, 足部則三里、絕骨兩穴, 議定矣.但或有邪氣所聚處, 及虛寒處當取阿是穴而灸之.今日入侍時更稟定奪宜當.)

참고로 인조10년 기사에는 우각구에 穴을 늘려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일반적인 침구 치료와 같이 치료 과정에서 대상 穴을 가감하여 치료 효과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 승정원일기 인조 10년(1632) 8월 27일 (임진)⁶⁾ 藥房에서 우각구에 穴을 가하겠다는 계를 올렸다.(藥房牛角灸加穴啓辭)

牛角灸 일반 뜸에 비해 크기가 크기는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지 경혈에 시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경혈들이를 비교적 개방된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정도 큰 뜸으로도 시술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훈증법에 활용된 예

다음의 기사는 인조의 耳鳴에 우각구를 사용한 경우이다. 인조의 이명은 비교적 심한 상태인데, 의관들은 이 병증을 風寒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각구의 뜸기운으로 귀를 훈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귀에 뜸을 뜨는 방법은 『東醫寶鑑』에 설명되어 있다.

“귀가 갑자기 먹어 뜸을 뜰 때는 창출을 7푼 길이로 잘라 한쪽은 평평하게하고 다른 한쪽은 뾰족하게 깎는다. 뾰족한 부분을 귀에 꽂고 평평한 부분에 뜸을 7장씩 뜬다. 심한 사람은 14장 뜬다. 귓속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 효과가 있다.”(灸耳暴聾, 蒼朮長七分, 一頭切平, 一頭削尖, 將尖頭挿耳中, 於平頭上灸七壯, 重者二七壯, 覺耳內熱卽

效.) 『東醫寶鑑 耳門』¹¹⁾

이 방법은 뜸속이 열기운을 잘 전달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각구가 보통 뜸에 비해 열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 승정원일기 인조 24년(1646) 10월 17일 (기축)⁶⁾ 전교에서 “전부터 귀 속에서 매미 소리가 나는 듯 했다. 이번 달 13일 부터는 갑자기 종을 치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가는 흐름이 아니라 큰 물이 급하게 흘러가는 소리고, 종소리 또한 있는데, 어제 아침 또한 그러하였다. 침이나 뜸으로 치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약방에서 “... 먼저 牛角灸로 귀를 훈증시키어 風寒의 氣를 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아뢰었다. (傳曰, 自前耳中, 或有蟬聲, 今月十三日左耳, 忽然有鍾鼓流水聲, 流水聲非細流聲, 大水急流聲, 亦有鍾聲, 昨朝亦如之, 鍼灸乎? 啓曰, 先以牛角灸, 薰于當處, 以散風寒之氣, 宜當)

6) 치험 효과를 기록한 예

우각구법으로 치료되었다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다. 기사에서는 왕 뿐만 아니라 신하, 청나라 사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효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① 인조의 치료기록

인조 11년 기사에서는 인조가 우각구로 효과를 본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당시 邪祟로 의심되는 증상들을 앓고 있었는데, 우각구가 그와 관련된 증상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 같다.

- 승정원일기 인조 11년(1633) 6월 14일 (갑술)⁶⁾ (증세를 묻는 약방의 질문에) 임금께서 “紫河車丹을 어제 먹었다. 우각구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答曰 且丸藥自昨日進服, 牛角灸頗似有效矣.)

인조 22년에는 足部の 寒冷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牛角灸를 사용한다. 8일에 걸친 기록에 따르면 우각구를 시술하여 증상이 해소되었다. 이런 치험들은 우각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왕을 치료했다는 점에서 우각구법이 국가적으 로 공신력 있는 치법이었음을 보여준다.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1644) 5월 18일 (을사)⁶⁾ 藥房에서 “주상께서 足部에 寒冷의 증상이 있어 牛角灸를 시행하라고 분부하셨으나 신등은 우려 를 금할 수 없습니다. 醫官들과 상의해 보니 陽氣가 항성한 때에 과도하게 뜬을 뜨게 되면 반드시 해가 될 것이므로 조금 줄이는 것이 마땅하겠 습니다.”라고 아뢰었다.(自上以足部寒冷之症, 有將行牛角灸之教, 臣等不勝驚慮之至.仍與醫官等相議, 則以爲當此亢陽之節, 若過度行灸, 則必有其害, 量宜少減而止, 爲當云, 敢啓.)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1644) 5월 19일 (병오)⁶⁾ 藥房에서 “어제 牛角灸를 뜬 후 밤사이 증상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다리가 찬 증상에 변화가 있 습니까? 여름철에 뜬을 뜨는 것은 熱氣를 도울 수 있으니 신등은 우려를 참을 수 없나이다.”라고 아뢰었다. (昨日行牛角灸後, 伏未審夜來聖候調攝, 若何? 足部寒冷之〈症〉, 其無差減之效乎? 夏月行灸, 或不無助熱之患, 臣等不勝憂慮之至, 敢來問安, 竝此仰稟.)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1644) 5월 20일 (정미)⁶⁾ 藥房에서 “牛角灸는 일반 뜬과 같지 않으나 만약 과도하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수 없나이다.”라고 아뢰었다. (牛角灸, 灸灸不同, 若至過度, 則或不無添傷之患)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1644) 5월 21일 (무신)⁶⁾ 藥房에서 “牛角灸를 시행한지 이미 여러 차례인데 다리의 증상은 차도가 없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다리가 차가운 증상이 줄어들어 없어진 것 같다.”라고 하였다. (啓曰, …… 牛角行灸, 亦已累度, 足部之症, 時無差減之效乎? 答曰, 足寒之症, 頗似減歇)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1644) 5월 24일 (신해)⁶⁾ 전교에서 “지금부터 牛角灸를 들이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傳曰, 今後牛角灸, 勿爲入之)
- 승정원일기 인조 22년(1644) 5월 25일 (임자)⁶⁾ 약방에서 “牛角灸를 어제로서 마쳤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요즘 증상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였다. (啓曰, 牛角灸, 昨已畢行矣. …… 答曰, 近日症候稍似減矣.)

② 金應南의 치료 기록

선조 30년 기사에서 金應南(1546~1598)은 선조에게 뜬을 많이 써야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金應南(1546~1598)은 당시 좌의정으로 의관 鄭士敏이 牛角灸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자신 역시 한 번의 뜬으로 효과를 본 경험을 설명하였다. 문맥상 그 역시 우각구를 통해 胸腹痛에 효과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좌의정이라는 높은 관직의 관료가 우각구를 시술받았다는 것은 이 기법이 사회지도층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 선조실록 30년 정유(1597) 4월 14일(갑술)⁵⁾ 應南이 “신이 의관 정사민의 말을 듣건대, 牛角灸로 뜨는 뜬은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본 자가 있다고 하였고, 신도 가슴을 앓는 자가 한 번의 뜬으로 효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필코 많이 떠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應南曰, 臣聽醫官鄭士敏之言, 以牛角灸, 一度爲之, 而有見效者云, 臣亦見胸腹痛者, 一灸而得效.不必多灸而有效也)

③ 淸 부척사의 치료 기록

다음의 세 기사는 효종대에 淸에서 파견된 부척사가 그의 병을 고치는데 牛角灸를 사용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副勅使와 金尙誠의 인연은 효종 3년에 시작된다. 平壤의 副勅使가 요통을 호소하자 조정에서는 醫官 金尙誠을 파견해 그를 치료하게 한다.⁶⁾ 이를 계기로 부척사는 자신이 아플 때 金尙誠을 불러 치료를 받게 된다.⁶⁾ 副勅使와 같은 외교사

Table 1. Clinical Cases of Horn-Shaped Moxibustion in the Annals of Chosun

왕조년대	날짜(월/일)	목표	시술부위	경과
선조30(1597)	4/14	脇下氣流注 (虛證)	阿是部	艾氣로 虛證 개선
선조34(1601)	3/24, 4/9	<불명> (虛寒證)	肩髃, 曲池, 足三里, 絶骨 및 阿是穴(7炷)	-
인조10(1632)	8/27	<불명>	-	牛角灸穴 늘림
인조11(1633)	6/14	<불명>	-	牛角灸로 효과 봄
인조22(1644)	5/18~5/24	足部 寒冷	-	-
인조24(1646)	10/18	耳鳴 (風寒之氣)	耳孔	시술 후 夜間煩熱
효종4(1653)	11/12~11/14	胸脇之痛	胸脇之間 阿是部 一穴(7炷)	-
효종8(1657)	5/26	左臂痛	左臂部	-
영조원년(1725)	10/10	疝氣	氣海穴(7炷)	-

절에게 金尙誠이 의술로서 신뢰를 쌓았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牛角灸를 시술했다는 것은 이 기법이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을 거친 방법이었음을 보여준다. 12월 기사에서 副勅使가 牛角灸를 떠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전 치료에서 金尙誠이 그에게 우각구법을 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11월 12일 (갑진)⁶⁾
“副勅使가 醫官 金尙誠을 불러 이전부터 앓던 胸脇痛이 완전히 낫지 않으니 아픈 곳 아시혈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牛角灸 7炷를 떠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啓曰, 卽刻副勅使招問醫官金尙誠, 以前患胸脅之痛, 尙不永差, 不得已當處阿是一穴, 自今日始, 爲牛角灸七炷云, 敢啓.)
- 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11월 13일 (을사)⁶⁾
약방에서 “副勅使의 醫官 金尙誠이 胸腹 사이의 阿是穴 한 곳에 牛角灸 7炷를 뜨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又啓曰, 卽刻副勅使之醫官金尙誠, 胸腹間阿是一穴, 牛角灸七炷云.)
- 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11월 14일 (병오)⁶⁾
약방에서 “副勅使가 醫官 金尙誠에게 병중에 매일 뜸을 떠서 매우 효과를 보았다고 말하고 지금 또 아시혈 한 곳에 牛角灸 7炷를 뜨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又啓曰, 卽刻副勅使言於金尙

誠曰, 病症, 連日行灸之餘, 頗有其效云, 而今又阿是一穴, 牛角灸七炷矣, 敢啓.)

이상 왕실의료문헌에 실려 있는 牛角灸法 치료 기록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각구법의 기록은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7) 문집에 기록된 牛角灸法

우각구법에 대한 문집의 기록들은 왕실의료문헌에 비해 소략하지만 이 역시 몇몇 중요한 사실들을 시사한다.

- 金世濂. 『海槎錄 八月 十五日丙戌』(1636)⁷⁾
내가 몸의 왼쪽이 좋지 않은 증세가 있어서, 의원 백사립(白士立)에게 牛角灸를 뜨게 하였다. (余患左邊不調. 命醫員白士立. 灼牛角灸.)
- 金正中. 『燕行錄 十二月 初七日』(1791)⁸⁾
곁에 누워 있던 사람이 왼발을 들어서 보이는데, 발에 종기가 있었다. 그는 …… 좋은 약을 적어 주기를 청한다. …… 마부가 곁에서 나에게 이 병에는 牛角灸法이 가장 좋다고 고하기에 그 말대로 써서 주었다. (有座右一臥人. 舉左足示之. 足有腫. …… 請書良藥. 余面赧手澁. 無以塞其請. 僕夫

Table 2. Clinical Cases of Horn-Shaped Moxibustion in the Anthologies of Chosun

기사연대	출전	목표	시술부위	경과
1636/8/15	海槎錄(金世謙)	左邊不調	-	-
1791/12/7	燕行錄(金正中)	원발의 증기	患部	-
1860	霧山先生文集(金聖鐸)	泄瀉	臍中(百壯)	-

從傍告余曰此病牛角灸最良。卽書其言贈之.)

위의 두 기록은 모두 여행기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는 저자 자신이 의원에게 牛角灸를 시술받은 기록이며, 두 번째는 마부로부터 종기에 우각구법이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록이다. 이 두 기사를 보면 여행과 같이 특별히 준비된 약재나 도구가 없을 때 우각구법이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기사에서 종기에 우각구법이 좋다는 마부의 이야기는 우각구법이 하층민에게까지 알려진 기법이었음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 金聖鐸, 『霧山先生文集 書 寄晉行』(1860)⁹⁾

내가 근래에 시험 삼아 배꼽에 뜸 대신 牛角의 방법[牛角灸法]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百壯 정도 되었는데, 배 속에서 문득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설사하던 증상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吾近試臍灸不煉. 而用牛角法. 今至近百壯. 腹中頓覺溫煖. 泄候頓減.)

위에 기록된 김성탁의 경험은 煉臍法과 牛角灸가 함께 사용되는 방법이 19세기 말에도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당시 우각구의 쓰임을 잘 보여준다.

문집에서 찾은 우각구법 관련 기록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Table 2)와 같다.

3. 우각구법의 특징 고찰

앞서 살펴본 역사 기록들을 토대로 牛角灸法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볼 수 있다.

1) 열자극으로 인한 고통과 피부 손상을 최소화
牛角灸法은 일반 뜸에 비해 쑥 심지의 크기가 크고 열자극이 강하면서도 피부에 느껴지는 고통은 적었다. 따라서 시술 횟수를 줄이고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열자극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선조실록 34년에는 “작구(灼灸)는 쑥심지[艾柱]가 매우 작지만, 우각구(牛角灸)는 쑥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는 타지 않으면서도 뜨거운 기운은 배나 더합니다.”(大凡灼灸, 則艾柱至小, 牛角灸, 則艾柱甚大, 雖不灼肌, 其薰熱之氣, 則倍蓰)라고 하여 쑥심지가 크고 열자극은 강하면서도 피부 손상은 적다고 적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22년에 부제조 尹順은 “牛角灸는 일반 뜸과 같지 않으나 만약 과도하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수 없나이다.”(牛角灼, 灼灸不同, 若至過度, 則或不無添傷之患)라고 하여 우각구가 일반 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손상이 적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에는 영조가 뜸의 뜨거움을 참기 어렵다고 하자 醫官 權聖徽이 “牛角灸의 경우에는 열이 심하지 않습니다.”(聖徽曰, 如牛角灸則不甚熱矣)라고 아뢰는 모습이 보인다.

또 선조실록 30년에는 “牛角灸로 뜨는 뜸은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본 자가 있다고 하였고, 신도 가슴을 앓는 자가 한 번의 뜸으로 효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필코 많이 떠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以牛角灸, 一度爲之, 而有見效者云, 臣亦見胸腹痛者, 一灸而得效. 不必多灸而有效也)라고 하여 牛角灸法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의 시술로도 효과를 나타냈다고 적고 있다.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 뜸으로 시술할 때 생기는 통증과 피부 손상은 당시 환자들에게도 큰 두

려움이였다. 牛角灸法은 일반 뜸의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술되었다.

2) 眞氣의 보충

우각구법은 진기를 보충하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침치료 후에 환자의 회복을 돕고 질병의 재발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실제 의서나 치료 기록에서 침법과 뜸법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드문 것으로 의학적인 가치가 있다.

당시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침치료는 사기를 배출하는 瀉法이기 때문에 眞氣도 어느 정도 소모시킨다고 본 것 같다. 따라서 주소증상을 침으로 다스린 뒤에 우각구를 사용하여 眞氣를 회복시키면 大病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회복을 돕고 질병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임상에서 질병 치료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몸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대형뜸을 일정기간 시술하여 眞氣를 보충시킨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虛寒證과 風寒證에 사용

牛角灸法의 치료 대상은 虛寒證과 風寒證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일반 뜸법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몇몇 증상에 있어서는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된 경우가 있다.

선조실록 34년에는 心熱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¹²⁾ 침으로 經脈을 소통 시킨 뒤에 “虛證으로 寒邪가 모이는 곳을 보아서 그곳에다 牛角灸를 떠서 眞氣를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然後觀其虛寒邪氣所聚處, 乃施牛角灸, 以補眞氣爲當)라고 하여 虛證으로 寒邪가 모이는 곳을 치료한다고 보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24년에는 인조의 耳鳴을 風寒의 邪氣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疏散시키기 위해 牛角灸를 시행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두 기사를 보면, 牛角灸法이 虛證으로 인해 寒邪 혹은 風寒邪가 침입하여 생겨난 증상을 치료하였

음을 알 수 있다.

4) 牛角灸法의 활용에

역사 기록에는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牛角灸法이 기본적으로 虛證, 寒邪, 風邪를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 증상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① 胸部的 통증

선조실록 30년에 藥房都提調 金應南이 스스로 胸腹痛에 한 번 牛角灸法을 시술하여 효과를 본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효종 4년에는 醫官 金尙誠이 牛角灸法으로 副勅使의 胸脇痛을 치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胸腹痛, 胸脇痛은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들로 風心痛, 冷心痛에 해당하는 질환들로 생각된다. 風心痛의 경우 兩脇引痛의 증상이, 冷心痛의 경우 心懸若飢 泄利下重의 증상이 특징적이어서 기사의 증상과도 연관성이 있다.¹¹⁾

② 耳鳴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인조의 耳鳴을 치료하기 위해 牛角灸法을 시행하였다. 耳鳴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腎虛한 상태에서 風邪에 감촉되어 생긴 虛鳴을 치료하기 위해¹¹⁾ 우각구법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癰疽

『燕行錄』十二月 初七日 기사에는 발에 생긴 癰疽에 牛角灸法이 특효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 속의 언급은 저자인 金正中을 수행하던 마부가 한 말이다. 마부의 말에 의학적 신뢰를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당시 癰疽에 牛角灸法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 의학 상식으로 통용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癰疽에 뜸이 사용된 것은 內經에서 이미 그 이론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²⁾

④ 煉臍法에 활용

조선 중기 이후, 특히 英祖代에 이미 나라 안에

煉臍法이 성행하고 있었다.²⁷⁾ 연제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臍中에 소금이나 약제를 채우고 그 위에 뜸을 떠서 고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⁴⁾

몇몇 기사들을 보면, 이 煉臍法에 牛角灸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각구가 일반 뜸에 비해 크기가 크고 열기운이 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기사에는 煉臍法을 시행하면 좋다고 설명한 뒤에 牛角灸가 언급되고 있어 煉臍法에 牛角灸가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霧山先生文集』에서 저자 金聖鐸은 스스로 배꼽에 일반 뜸을 뜨던 방법 대신 牛角灸를 뜨는 방법으로 바꾸어 백여장을 시행하였더니 고질적이었던 泄瀉가 줄었다고 기술하여 연제법에서 일반 뜸을 사용하는 것 보다 牛角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였다.

⑤ 기타 증상

이 외에 인조 22년 足寒을 치료하기 위해 牛角灸法이 사용되었고, 영조원년에는 영조의 疝氣를 치료하기 위해 牛角灸法이 사용되었다. 인조의 足寒의 경우 寒厥에 해당하는 것으로 虛寒證으로 보고 牛角灸法이 시행되었으며, 영조의 疝氣 역시 寒疝證으로 보고 치료되었다고 추측된다.

결론

지금까지 기사를 통해 牛角灸法을 고증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문헌연구라는 한계로 인해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시대 牛角灸法에 대한 당대 평가나 관념들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의 결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牛角灸法은 오늘날 대형뜸의 초기 형태로서, 관련 기록들은 오늘날 임상적인 데이터와 시술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둘째, 牛角灸法이 단일 요법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문 의서 이외에 왕실의료문헌과 문집 등에 비교적 많은 기록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牛角灸法이 조

선 중후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요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牛角灸法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 뜸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보완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쑥 심지의 크기를 키워 뜸의 열기운을 강화하면서 뜸 뜨는 횟수는 줄일 수 있었다. 또 쑥 심지 안을 비우는 방법으로 시술시 열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피부를 태우는 손상을 최소화 하였다.

넷째, 牛角灸法은 眞氣를 보충하는 효능이 있어 치료 후에 환자의 회복을 돕고 질병의 재발을 막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다섯째, 牛角灸法은 虛寒證, 風寒證 등 일반 뜸법이 주치증으로 하던 증상들에 두루 사용되었고, 구체적으로는 胸痛, 耳鳴, 癰疽, 足寒, 疝氣, 癰疽, 泄瀉 등의 질환을 들 수 있다. 또 강한 열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煉臍法을 시행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근대화의 흐름 속에 2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牛角灸法이라는 이름을 잊게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대형뜸을 이용한 기법들이 우각구법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문헌 속의 콘텐츠들과 잘 연결해 나간다면 임상 의학과 기초의학을 연결하는 좋은 접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Park HJ, Son CG. Overview for moxibustion-related researches worldwide. The Korean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2008;25(3): 167-174.
2. Kim HK, Park YB, Kang SK.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Properties of Moxibustion - Focused on Naekyung. J Korean Oriental Med. 1993;14(1) :139.
3. Oh JH, Ahn SW. Document Research for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Acupunctural Method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 2005;18(1):103-126.
4. Oh JH. Medical History Research on DongEuiBo Gam's Acupuncture/Moxibustion Methods.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2006:9-17.
 5. Institute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6.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
 7. Institution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B of Korean Classics. Translated classics. He-You-Lock(『海槎錄』).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
 8. Institution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B of Korean Classics. Original editions of National studies. Yun-Hang-Lock(『燕行錄』).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
 9. Institution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B of Korean Classics. Korean Literary Collection. Je-San-Zip(『霽山集』).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
 10. Hur-Im. Chim-Gu-Kyung-Heom-Bang(『鍼灸經驗方』). Seoul;Li-Gang publish. 1992:602.
 11. Hur-June. Dong-Yi-Bo-Gam(『東醫寶鑑』). Seoul; Namsan-Dang. 1998:233, 263, 237-238.
 12. Lee HW. Study on the Diseases of King Myeongjong, Seonjo, and Gwanhaegun, in the Chosun Dynasty. Dong Eui University. 2002:32.
 13. Oh JH. A study on the acupuncture & moxibustion fix-a-day method in Seunjengwon-Ilggi.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9;22 (1):15-24.